

A magazine about Shimane Prefecture, Japan

시마네 이모저모

Vol. 71

ものを 大事にする生き方

大切な教えをプレゼントする病院
—子どもたちのために、おもちゃを「治療する」お話—
蛇胸の生まれ変わり：新たな命を吹き込み、心を癒す
生きて流れる金継ぎの哲学
生活に句読点を
—読書を通して歴史と知識を伝える力—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삶

소중한 가르침을 선물하는 병원 -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을 '치료' 하는 이야기 -
뱀 몸통의 재탄생: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마음을 치유하다
살아서 흐르는 긴쓰기의 철학
생활에 구두점을 찍다 - 독서를 통해 역사와 지식을 전달하는 힘 -



大切な教 プレゼントする病院

소중한 가르침을 선물하는 병원

-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을
'치료'하는 이야기 -

박혜영

"제작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변신 벨트가 고장 났어요."라고 병원을 찾아온 아이오이 군(7살)이 말합니다. 아이오이 군이 그 장난감을 얼마나 아끼고 좋아했을까, 얼마나 속상할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져 옵니다. 아이오이 군이 찾아가는 곳은 마쓰에시에 있는 '장난감 병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고장 난 장난감을 치료하여 다시 아이들의 손에 돌려줍니다.



박·헤·욘

田さんがこの活動を始めたきっかけは、15年前に新聞でおもちゃの病院のドクターを募集する記事を見たことでした。その記事をきっかけに吉田さんは手を挙げ、活動をスタート。子どもの頃から修理が得意だった吉田さんは、今では地域の子どもたちのために、おもちゃの治療に力を注いでいます。

「おもちゃの病院では、治療は無料で行き、預かったおもちゃの95%は修理可能です」と吉田さんは話します。最近では海外製のおもちゃが増えており、電子部品の違いによって修理が難しい場合もあります。おもちゃの治療に携わる活動メンバーの猪狩さんは、「治療できない時は、子どもたちの笑顔が見られないのが本当に残念です」と語ります。壊れたおもちゃに命を吹き込むその姿勢からは、子どもたちへの深い愛情と責任感が強く伝わってきます。

「おもちゃの病院」は、壊れたおもちゃに新たな命を与える場所です。現代は、何でもお金で手に入る時代だからこそ、「物は直せば使える」という価値観を子どもたちに伝えることが、これからの社会を担う子どもたちにとって、非常に大切な学びとなるでしょう。

大切な教をプレゼントする病院

—子どもたちのために、おもちゃを「治療」するお話—

「一昨年、クリスマスプレゼントでもらった変身ベルトが壊れちゃったの」と話すのは、7歳のあおいくん。お気に入りのおもちゃが壊れると、どれだけ悲しいかはよくわかります。そのあおいくんが向かったのは、松江市にある「おもちゃの病院」。ここでは、壊れたおもちゃをボランティアスタッフが手当てし、再び子どもたちの手に戻すことができるのです。

あおいくんのお母さんは、「おもちゃの病院で直してもらってから、子どもたちはおもちゃをもっと大切に使うようになりました。物を大事にする心が生まれ、教育にも良い影響を与えていると思います」と話してくれました。おもちゃの治療を通じて、物を大切にしている気持ちが育つ場所。それが、この病院の大きな魅力の一つです。

今回、「おもちゃの病院」を訪れたのはあおいくんだけではありません。兄のさくらくん(10歳)は2回目の訪問で、弟やお母さん、友達と一緒に来ていました。「思い出が詰まったプレゼントだから、早くおもちゃが治ってほしい」と話すさくらくんの気持ちは、きっと家族全員が共有していることでしょう。

「松江おもちゃの病院」は1994年に開院し、今年で32年目を迎えます。代表の吉



아오이 군의 어머니는 "장난감 병원에서 장난감을 고쳐주고 난 뒤에 아이들이 장난감을 더 소중히 다루더라고요.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교육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장난감을 버리지 않고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자라게 된다는 부분이 이 병원의 큰 매력입니다.

이번에 '장난감 병원'을 방문한 것은 아오이 군만이 아닙니다. 형인 사쿠라 군(10살)은 이번이 두 번째 방문으로, 이번에는 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친구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추억이 담긴 제 소중한 선물이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사쿠라 군의 마음은 온 가족이 함께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마쓰에 장난감 병원'은 1994년에 개원하여 올해로 32년째입니다. 대표인 요시다 님이 이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15년 전, 신문에서 장난감 병원의 의사를 모집한다는 기사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계기로 요시다 님은 자발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어릴 적부터 물건을 고치는 게 능했던 요시다 님은 현재 지역 아이들을 위하여 장난감 치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요시다 님은 "장난감 병원에서는 무료로 치료가 진행되며, 맡겨진 장난감의 95%는 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제조된 장난감이 많아져 전자 부품의 차이로 수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장난감 치료 활동가이자 자원봉사자인 이가리 님은 "치료 불가능한 장난감을 볼 때면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참 아쉬워요."라고 말합니다. 고장 난 장난감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 모습에서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장난감 병원'은 고장 난 장난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곳입니다. 지금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시대이지만, '물건을 고치면 쓸 수 있다'는 가치는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배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 양육 지원 센터(아이아이) 개원 일정>

- 주소: (우) 690-0045, 마쓰에시 노시라마치 32-2 보건복지 종합센터 내
- 개원 시간: 10:00~15:00 (접수 마감 시간 14:00)
- 개최 일자: 매월 두 번째 토요일
- 연락처: 080-6311-8843
- ※ 다른 곳에서도 장난감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子育て支援センター(あいあい)おもちゃの病院開院日程】

- 住所: 〒690-0045 松江市乃白町32-2 保健福祉総合センター内
- 開院時間: 10:00~15:00(受付は14:00まで)
- 開催日: 毎月第二土曜日
- 連絡先: 080-6311-8843
- ※他の場所でも開院しています。

뱀 몸통의 재탄생: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마음을 치유하다

비앙카 찬

이와미카구라의 뱀의 형상을 한 ‘뱀 몸통’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남아 버려지기 전에 ‘뱀 몸통’의 재료로 쓰이는 일본 종이를 소품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업사이클 삼여정(三餘亭)’이라는 공방을 운영하는 가지가세 님입니다.

가지가세 님은 과거 병원에서 근무하였으나, 우울증으로 인하여 58세의 나이로 퇴직했습니다. 그런 가지가세 님은 “저는 그 뱀 몸통에 저 자신을 겹쳐 보게 됩니다. 30년간 사용되다가 결국 버려지고, 뱀 몸통이 마치 역할을 다한 것처럼 보이죠. 저 또한 30년 동안 필사적으로 일하다 보니 어느새 지쳐버렸습니다. 하지만, 불에 태워져 버려지기 직전의 뱀 몸통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면 체계 치유와 구원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뱀 몸통을 소중히 다루면 마치 뱀 몸통이 저를 치유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일을 시작한 계기라고 말합니다.

공방 이름에 사용된 ‘업사이클’이란 필요하지 않거나 버려질 물건이 새로운 재료 및 형태로 재탄생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버려졌던 것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한때 가치 없어 보였던 것에도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어집니다.

공방이 있는 시마네현 하마다시 도노우라초 마을은 일본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 기타마에부네(北前船)의 기항지였던 곳입니다. 선주들이 기항지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다른 기항지에서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회선(回船)이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기타마에부네는 단순히 물건을 운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고 낭비 없이 활용하여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낡은 옷이나 천을 찢은 후 다시 엮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사키오리’ 기술이 하나의 예시입니다. 교토에서는 입다 버린 의복을 기타마에부네로 도호쿠 지방으로 운반한 뒤, 그 지역의 여성들이 이를 구매해서 찢은 후 재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뱀 몸통’에 사용되는 일본의 종이를 소품 등으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발상,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은 이곳에서 가지가세 님이 태어나고



蛇胴の生まれ変わり:新たな命を吹き込み、心を癒す

ビアンカ・チャン

石見神楽に登場する大蛇の「蛇胴」が経年劣化し廃棄される前に、その素材の石見半紙を小物などにアップサイクルしている人がいます。「Upcycle三餘亭(さんよてい)」という工房を営む榎ヶ瀬 孝(かじかせ たかし)さんです。

榎ヶ瀬さんはそれまで病院に勤務していましたが、うつ病になり58歳で退職しました。榎ヶ瀬さんがこの仕事を始めるきっかけとなったのは、「私はその

蛇胴に自分自身を重ねてしまう。30年間使われ続け、やがて捨てられ、役目を終えたかのように見える蛇胴。私もまた、30年の間、必死に働き、気づけば疲れ果ててしまった。しかし、この燃却廃棄される寸前の蛇胴を再びよみがえらせる事が出来れば私にとって癒しと救済の象徴となる。蛇胴を大切にすることで、まるで蛇胴が私を癒してくれているかのようだ。」と榎ヶ瀬さんは語ります。

工房の名前で使われている「アップサイクル」とは、廃材や不要な物、無駄になったものを新たな素材や形へと生まれ変わらせるプロセスです。これにより、捨てられたものが再び息を吹き返し、かつて無価値に見えたものに新たな命が吹き込まれます。

工房が位置する浜田市外ノ浦(とのうら)町は、江戸時代から明治時代にかけて北前船(きたまえぶね)の寄港地でした。船主たちが寄港地で商品を仕入れ、別の寄港地で売却して利益を得る買積みの回船が往来していました。北前船は単に物を運ぶだけでなく、物の価値を見極め、無駄なく活用し、再利用する仕組みを支えていました。例えば、古着や布を裂いて織り直し、新しい製品へと生まれ変わらせる裂織(さきおり)の技術はその一例です。これは、京都で着古された和服を綿が取れなかった東北へ北前船で運び、婦人たちは争ってその和服を買い求め、それを割いて再生し、新たな価値を生み出す工夫の





자란 덕분에 깊게 뿌리내려졌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고향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낳은 결과일 것입니다. 가지가세 님은 언젠가 자신의 작품이 하마다의 기념품으로서 고향의 매력을 찾는 이들에게 전달되며, 지역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고향에 기여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실은 중요한 건 물건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가지가세 님은 한 고객으로부터 매우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연히 명함을 주고받은 상대도 제가 만든 명함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작은 우연이 대화의 계기가 되었고, 제 작품이 인연의 연결고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라며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가지가세 님의 재활용 작품은 단순히 재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과의 인연과 연결고리, 그리고 이야기 엮어냅니다. 이것이야말로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행위는 단순히 물건 그 존재를 넘어서 우리에게 인연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一つでした。

「蛇胴」の和紙を小物などにアップサイクルするという新しい発想と、物を大切にする精神は、この地で榎ヶ瀬さんが生まれ育ったからこそ深く根付いているのでしょう。そして、生まれ育った故郷と人々に恩返しをしたいという思いにも至ったのでしょう。榎ヶ瀬さんはまた、いつか自分の作品が浜田のお土産として故郷の魅力を訪れる人々に伝え、地域への誇りになることで、故郷に貢献したいと願ってまいります。

実際のところ、大切なのは物そのものだけではありません。榎ヶ瀬さんは、あるお客様から非常に印象深い話を聞きました。「その方が名刺を交換した相手も、偶然にも私が作った名刺入れを使っていたというのです。その小さな偶然が会話のきっかけとなり、私の作品が新たな繋がりを生んだことに、とても嬉しく思いました。」と感慨深げに語りました。

榎ヶ瀬さんのアップサイクル作品は、単に素材に新たな命を吹き込むだけでなく、人と人とを繋ぐ物語や関係を紡いでいます。これこそが、物を大切にすることの本当の価値なのかもしれません。物を大切にすることで、物は単なる存在以上のものとなり、私たちに人との繋がりの大切さを思い出させてくれるのです。





살아서 흐르는 긴쓰기의 철학

곽 소현

한때 일본의 차인(茶人)들은 긴쓰기의 흔적을 ‘강의 흐름’이라 불렀다. 오늘날 이 고대의 기술은 끊임없이 흐르며, 새로운 지류를 만들어가면서 그 본질인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긴쓰기는 깨지거나 금이 간 도자기를 옷칠로 접착하고, 창의적인 장식으로 완성하는 일본의 전통 공예이다. 차도(茶道)가 성행하던 시대에 값비싼 찻그릇을 소중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발전한 기술로, 금이 간 부분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부각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긴쓰기는 ‘와비사비’라는 일본 고유의 미학, 즉 ‘불완전함, 무상, 불완전함 속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기술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와비사비’라는 말은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이 더 자주 사용하게 된 것 같다. 긴쓰기와 그 철학 또한 세계로 퍼져 나가며, ‘일본 문화’로서 외국인들이 독자적으로 해석한 후 다시



일본으로 역류하게 되었다.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서양에서 긴쓰기에 대한 호기심이 2012년경부터 나타났으며, 이후 ‘kintsugi’라는 검색어의 인기는 계속해서 증가했고 2024년 10월에 최고조에 달했다. 이 12년간 검색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 많았다. 이를 돌아보면, 서양에서 긴쓰기는 ‘정신 건강, 웰빙, 자기 수용, 다양성, 지속 가능성, 비즈니스 전략’ 등과 연관되며, 라이프스타일 철학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生きて流れる金継ぎの哲学

かつて、日本の茶人たちは金継ぎの痕跡を「川の流れ」と呼んでいた。今日、この古い技法は絶えず流れ、新たな支流を生み出しながら、その本質である「物を大切にする精神」を受け継ぎつつ、新たな意義を持つようになっている。

金継ぎは、割れたり欠けたりした陶器を修復し、さらに創造的な装飾を施す日本の伝統工芸だ。茶道が盛んだった時代、高価な茶器を大切に使うために発展した技法であり、元の割れ目を隠すのではなく、むしろ際立たせるのが特徴である。そのため、金継ぎは「侘び寂び」という日本独自の美意識——「不完全・無常・不完全さの美」を体現しているとも言われている。

しかし現在、「侘び寂び」という言葉は、日本文化に興味を持つ外国人の方がより口にするようだ。そして、金継ぎとその哲学もまた世界へと広まり、「日本文化」として外国人による独自の解釈を経て、日本へと逆流するようになった。

西洋における金継ぎへの好奇心は、Googleトレンドのデータによると、2012年頃から現れ、その後「kintsugi」という検索ワードの人気は増加し続け、2024年10月にピークを迎えた。この12年間で、検索量の増加に影響を与えた出来事は数多い。これらを振り返ると、西洋における金継ぎは「メン

郭小軒

タルヘルス」「ウェルビーイング」「自己受容」「多様性」「サステナブル」「ビジネス戦略」などと結びつけられ、ライフスタイル哲学の象徴ともなっていることがわかる。

一方、発祥地である日本では、金継ぎの魅力はより具体的で、実用的なものだった。「金粉蒔きは最後の装飾で、そこに至る修理工程が大切です」と話すのは、漆を使った金継ぎの技法を教える漆芸作家・高橋香葉氏。仕上げ



수 있다.

한편, 발상지인 일본에서는 긴쓰기의 매력이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것이었다. 긴쓰기의 기술을 가르치는 일본의 전통 공예가인 다카하시님은 “금분을 뿌리는 것은 마지막 장식으로, 장식에 이르기까지의 수리 과정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한다. 그는 장식하는 과정에서 금분만이 아니라, 옷과 다른 금속 가루, 광물 가루, 안료를 섞거나 옷 자체의 색을 살릴 수도 있지만, 그 그릇에 ‘어울리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고 전한다. 일본 공예회 정회원인 그의 작품은 시마네현립미술관에서 열린 제71회 ‘일본 전통 공예전’에 출품되기도 했다.

다카하시님이 강사로 활동하는 긴쓰기 강좌에는 많은 수강생들이 자신이나 가족, 친구들의 소중한 도자기를 가져온다. 그중에는 10년 이상 긴쓰기를 배우고 있는 수강생도 있다. 한 수강생은 “제가 물건에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긴쓰기를 배우면서 ‘선택해서 구매한 것, 추억이 담긴 것, 깨져도 버릴 수 없을 만큼 좋아하는 것’을 오랫동안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발생한 긴쓰기 붐에 관해서 다카하시님은 “외부에서 평가받는 것은 좋은 자극이 됩니다. 마치 캐치볼처럼 일본인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다시 한번 인식되는 거죠.”라고 말한다. 일본에서도 한때 소비주의가 주류를 이루었던 시기가 있었으나, 최근 다시금 긴쓰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음식점이나 일반 카페에서도 최근 꽤 많이 퍼지고 있는 걸 실감합니다. 깨져서 고친 것이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여기게 됐다고 볼 수 있죠.”라고 말한다.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일본 문화는 매우 다양하다. 일본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떠올리는 것은 전통문화, 애니메이션, 만화뿐만이 아니다. 식문화, 편의점, 기술, 패션, 음악 등 매우 폭넓다. 해외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문화가 늘어날수록 변화의 가능성도 커지고, 그 변화에서 생겨나는 생명력도 강해진다. 긴쓰기도 그중 하나의 예시일 것이다.

‘일본 전통 공예전’의 취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전통은 살아서 흐르고 있는 것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을 지니면서도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는 것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긴쓰기에 사용되는 옷

긴쓰기에서 모든 과정에 사용되는 옷은 옷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이다. 옷나무에서 나오는 옷은 한 그루당 약 200mL 정도 밖에 나오지 않고, 좋은 품질의 옷을 채취하기까지 10~15년이 걸린다.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피가 나고 딱지가 생기듯, 나무도 상처를 입은 부분에서 나오는 수액(옷)이 굳어 자가 방어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채취하는 장인들은 나무를 조심스럽게 상처를 내며 한 방울씩 정성껏 채취해야 한다. 이 과정만으로도 몇 달이 걸린다.



에는 금분だけでなく、漆と他の金属粉、鉱物粉、顔料を組み合わせたり、漆そのものの色を生かしたりすることもできるが、「その器に合ったものが一番私は好きかな」と語る。日本工芸会の正会員である彼女の作品は、島根県立美術館で開催された第71回「日本伝統工芸展」にも出品されていた。

高橋氏が講師を務める金継ぎ講座には、多くの生徒が自分や友人・家族の大切な陶器を持ち込む。その中には、10年以上金継ぎを学び続けている生徒もいる。「物に対する執着があるのかな」と、一人の生徒は言う。金継ぎを学ぶことで、「選んで買ったもの」「思い出が詰まったもの」「割れても捨てられないほど気に入ったもの」を長く日常の中で使い続けられるようになり、そこに意味があるのだそうだ。

海外での金継ぎブームについて、高橋氏は「外から評価されることは良い刺激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キャッチボールみたいに、日本人が当たり前だと思っていたことが再認識されます」と話す。日本でも、かつては消費主義が主流だった時期もあったが、近年再び金継ぎに注目が集まっている。「飲食店や普通のカフェでも最近かなり浸透していると実感します。必ずしも欠けて直しているものが失礼なものとは思われなくなってきています」と彼女は言う。

今日、世界に広まる日本文化は非常に多様である。日本と聞いて外国人が思い浮かべるものは、伝統文化やアニメ・漫画だけでなく、食文化、コンビニ、テクノロジー、ファッション、音楽など多岐にわたる。そして、海外で認知され、愛される文化が増えれば増えるほど、変化の可能性も広がり、その変化が生み出す生命力も強まる。金継ぎもまた、その一例であろう。

「日本伝統工芸展」の趣旨にはこう記されていた。
「伝統は、生きて流れているもので、永遠にかかわらずの本質をもちながら、一瞬もとどまることのないのが本来の姿であります。」



생활에 구두점을 찍다

- 독서를 통해 역사와 지식을 전달하는 힘 -

미우라 카롤리나 모모에

저에게 책을 읽는 행위란 이야기라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세계를 접하고, 다른 문화를 발견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소중한 취미입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책을 읽는 것은 때때로 정신적 탈출이 되어 줍니다.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다른 세계에 빠져드는 기분이 듭니다.

시마네현 이즈모시에는 아늑하고 사랑스러운 중고 서점 '구두점'이 있습니다. 시내 상점가에 위치한 이 서점은 2021년에 오픈하였고,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가게 이름은 흥미롭게도 '句読点(구두점: 글을 마치거나 쉼 때 찍는 마침표와 쉼표.)'이라는 한자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서점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책에 애정을 지니고 있는 시마다



님과 쿠리하라 님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마네현 출신이 아니지만, 이즈모시의 잔잔한 분위기에 매료되어 이곳에서 꿈꾸던 서점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구두점이 없는 문장이 읽기 어렵고

生活に句読点を - 読書を通じて歴史と知識を伝える力 -

ミウラ カロリナモモエ

私にとって、本を読むことはその物語に入り込み、あらゆる世界に触れ、異なる文化を発見し、精神的なストレスを軽減してくれる大切な娯楽です。まるで、不思議な国のアリスのような異世界に迷い込む気分になります。

島根県の出雲市には、アットホームで愛らしい古本屋「句読点」があります。市内の商店街に位置するこの本屋は、2021年にオープンし、読書好きが集まる場所となっています。この書店は、より公正な社会を築くために活動している本好きの嶋田さんと栗原さんによって運営されています。二人とも、県外出身でありながら、出雲市の落ち着いた生活にあこがれて、夢に見ていた本屋さんをここで開く事にしたのです。嶋田さんは、句読点のない文章が読みにくく解釈しにくいと同じように、私たちの生活において、本の存在は必ずしも必要ではないかもしれないが、本がないと生活が極めて単調になり、生きづらくなる可能性があると言います。このように、句読点という名の書店は人々の生活の中の句読点となり、物事の意味と新しい考え方を与えることを目指していると語っています。

お店の棚には、希少な絶版本や、時代を感じる物語、様々なジャンルの本が丁寧に整理され、置かれています。誰かにとっては懐かしく感じられ、逆に新鮮な印象を受ける人もいます。

古本以外にも、厳選された新刊本を販売するコーナーもあり、素朴さと現代的な雰囲気が楽しめる興味深い場所です。読書会、ライブ、手芸等のイベントも開催しており、幅広い年齢層のお客さんが訪れます。このような環境は、読者同士の交流を促進し、人々の出会いの場となり、知識の普及に繋がると思います。

私は、「Only Reading Club」という読書イベントが特に好きです。この読書会では、既に読んだ本や棚の奥にしまっておいた未読の本を持ち寄って、2時間かけてじっくり読むというイベントです。その後、他の参加者とそれぞれの本を紹介し合い、なぜその本を選んだのかという理由や感想を共有します。長時間の読書の後に栗原さんが用意してくださる軽食を食べて、おしゃべりする時間が居心地いいです。

句読点のような古本屋は、廃棄される可能性があった作品に新たな価値を与え、より意識的で持続可能な消費を促進しています。ブラジルでも、様々な古本屋が存在し、古き良き文学作品、忘れてはいけない植民地時代の歴史や、移民の歴史など、「Brazil」というアイデンティティを守る役割をしていると思います。

嶋田さんの見解では、この情報とスピード重視の世界で、私たちは不必要

해석하기 힘든 것처럼, 우리의 생활에서 책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책이 없으면 생활이 매우 단조로워지고 살아가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시마다 님은 말합니다. 이렇게 ‘구두점’이라는 서점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구두점이 되어, 사물의 의미와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선반에는 절판된 희귀한 책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책이 정성스럽게 정리 및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고 그리움을 느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고 서적 외에도 엄선된 신간을 판매하는 코너도 있어 소박하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독서회, 라이브, 공예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열리고 있어 폭넓은 연령층의 손님들이 방문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독자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사람들의 만남의 장이 되어 지식의 확산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특히 ‘Only Reading Club’이라는 독서 이벤트를 좋아합니다. 이 독서회에서는 이미 읽은 책이나 선반 깊숙한 곳에 묵혀두었던 책을 가지고 모여서 2시간 동안 심도 있게 읽는 활동을 합니다. 그 후 다른 참가자들과 각자의 책을 소개하며 책을 선택한 이유와 감상을 공유합니다. 긴 시간의 독서 후, 쿠리하라 님이 준비해 주시는 간단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편안함을 선물합니다.

구두점 같은 중고 서점은 폐기될 뻔한 작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더 의식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도 다양한 중고 서점들이 존재하며, 그곳은 옛 문학 작품이나 잊지 말아야 할 식민지 시대의 역사, 이민의 역사 등 ‘브라질’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마다 님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정보와 속도 위주의 세계가



진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둘씩 버리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만 존재하는 세상은 즐겁지 않습니다. 책은 지식, 문학, 역사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며, 문화적이고 꿈이 있는 사회를 창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구두점’이라는 사랑스러운 서점을 운영하는 시마다 님과 쿠리하라 님은 이러한 생각을 통하여 책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교류와 토론을 통해 배우는 즐거움을 전하고자 가게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なものをどんどん削ぎ落として生きています。しかし、「必要なもの」だけが存在する世界は面白くないのです。本は、知識、文学、歴史を守り次世代へ伝え、文化的で夢のある社会を創造する上で極めて重要なアイテムです。

句読点という愛される書店を営む嶋田さんと栗原さんは、このような思いを持って、本の大切さだけでなく、交流や議論を通して学ぶ楽しさを分かってもらえるようにと、お店で様々なイベントを開催しています。是非、足を運んでみてはいかがでしょうか。

A magazine about Shimane Prefecture, Japan <https://www.pref.shimane.lg.jp/bunkakokus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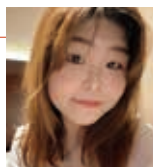
시마네 이모저모

편집자: 박혜영

발행처: 시마네현 환경생활부 문화국제과

정보지에 대한 의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쪽으로 연락바랍니다.
bunka-kokusai@pref.shimane.lg.jp

発行: 島根県環境生活部文化国際課



Bianca C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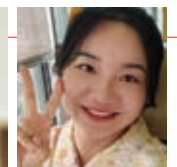
Guo Xiaoxuan



Carolina M Miura



Hyeyeong Park



Tang Cong